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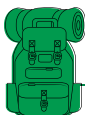
자연 속에 내 집을 짓자!

백패킹에 적합한 국내 추천 장소

글. 심영우 KFN 국군방송 기술감독, 승중희 여행가

지난 호에서는 백패킹을 위한 사전 준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호에서는 백패킹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산, 계곡, 섬 등 지형에 따른 백패킹 방법, 날씨에 따른 백패킹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테마에 따른 재미 포인트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에 예시로 든 장소들은 필자의 개인 취향을 반영한 곳으로 직접 경험을 토대로 접근성이 좋거나, 자연 풍경이 멋진 곳이다.



어떻게 갈까?

백패킹은 등짐을 짊어지고 걷는 활동이지만, 집을 나서면서부터 걸을 수는 없다. 정확한 야영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야영지가 위치한 자연까지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기차 등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백패킹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걷는 활동 대신 이동 수단과 결합된 백패킹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오롯이 걷는 백패킹

가장 기본이 되는 백패킹의 형태로 트레킹과 연계된 백패킹이다. 우리나라의 땅은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개 둘레길이나 등산과 결합한다. 약 15kg 내외가 되는 배낭을 메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야 해서 체력의 안배와 본인의 체력, 컨디션 등에 따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아차산, 용마산 등에서 백패킹을 즐기는 이들을 만날 수 있으며 다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산은 등산객이 많기에 백패킹이 제한적이며 다소 어려우므로 서울 인근의 양주 노고산, 용인 독조봉, 가평 유명산 등을 추천한다.



양주 노고산 전망대 백패킹

노고산은 주차 후 약 두 시간 정도 등산하면 비박지를 찾을 수 있는데 서울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산을 아름답게 조망할 수도 있다.



경상북도 울진 금강송 군락지

CNN 방송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명품 트레킹 코스인 울진 금강송은 소나무 숲길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피톤치드를 마시며 4~5시간 트레킹을 하고 백패킹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자동차 백패킹

배낭 하나만 차에 싣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간편하고, 걷기를 최소화하기에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강원도 횡성 태기산, 평창 청옥산 육백 마지기, 강릉 안반데기 등 의외로 차를 타고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산이 꽤 있다.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

안반데기는 해발 1,100m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 봉우리 능선이다. 한여름에도 30도가 넘지 않아 선선한 편이며 우리나라 은하수 촬영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낭만적인 밤을 만날 수 있다. 봄에는 보리밭이, 여름에는 고랭지 배추가 만 들어 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고랭지 배추 수확이 끝나는 9~10월은 수확하고 남은 배추 썩은 냄새가 곁들여지니 가급적 이 시기는 피하는 게 좋다.



춘천호 잣나무 숲

잣나무 숲 바로 옆에 춘천호가 있어 상쾌함과 더불어 강이 주는 시원함까지 맛볼 수 있다. 의외로 주위에 불빛이 많이 없어 은하수도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춘천호가 꽁꽁 얼어붙어 얼음 위에서 빙어 낚시를 즐기며 백패킹을 즐길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는 주위 사람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전라남도 영암 활성산

활성산은 서광목장 옆에 자리 잡고 있어 풀들이 무성한 곳이다. 농선을 따라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마치 강원도 선자령을 연상케 한다. 기암괴석이 장관인 월출산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



파주 감악산 잣나무숲

차로 잣나무 숲 안까지 진입할 수 있어 오프로드 캠퍼들도 즐겨 찾는 곳이며 빼곡한 잣나무가 만든 그늘 아래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바람을 맞으면 쉴 수 있다.

스쿠터 백패킹

기동력이 좋은 이동 수단이기에 길에 구애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백패킹을 즐길 수 있으며 주차가 아주아주 편리하다. 필자는 따로 오토바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을 때 종종 스쿠터를 빌려 백패킹 여행을 즐긴다.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좁은 길까지 누빌 수 있어 제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제주도 군산오름

서귀포시에 위치한 군산오름은 스쿠터에서 내려 20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산방산과 중문관광단지를 조망할 수 있다. 오름 정상에서는 한라산이 보이며, 한라산과 함께 일출을 볼 수 있다.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서핑, 패들보드, 해수욕을 하며 즐겁게 백패킹을 즐기기에 좋고 제주 공항에서 가까운 인근에 마트와 식당이 있어 편의성이 더욱 좋은 곳이다.



제주도 우도 비양도

백패킹 성지로 알려진 우도 비양도는 작년부터 렌터카와 오토바이가 통제되면서 지금은 전기차, 전기 스쿠터로 이동할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제주도를 즐길 수 있으며 제주도 서쪽에 비양도라는 섬이 따로 있으니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돌레길 5코스 어딘가

제주도에서 스쿠터 백패킹을 즐기며 가장 좋았던 점은 정처 없이 다니다가 아름다운 스팟이 나오면 아무 곳에서나 야영을 한다는 것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지금! 당장! 이곳에서! 아름다운 제주 해변을 보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전거 백패킹

스쿠터 백패킹 못지않게 자전거 백패킹도 기동력이 좋다. 다만, 사람의 힘으로 동력을 만들어 내기에 짐을 최소화해야 한다. 텐트와 매트, 침낭만 있다면 야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간편하게 짐을 꾸리고 라이딩과 함께 백패킹을 즐긴다면, 라이딩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여주 강천섬

남한강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고, 평지를 조금만 걸으면 도착하기에 초보 백패커가 가기 좋은 곳이다.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서울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강천섬까지 가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섬 주위를 돌며 천천히 산책하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 섬 중앙에는 은행나무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11월 초쯤 가면 은행 나뭇잎이 떨어져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한다.



어디로 갈까?

산

백패킹을 하며 가장 자주 찾게 되는 장소가 산이다. 트레킹, 등산이 더해지기에 힘은 들지만, 높은 고도에서 산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감상하면 고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이 맛에 산 백패킹을 즐긴다.



진안 운장산 칠성대 백패킹

운장산 칠성대는 해발 1,120m로 지대가 높아 주위 여러 산봉우리를 조망할 수 있다. 주위에 불빛이 적기 때문에 수많은 별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여름에 가더라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다. 칠성대는 칠성급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야영지가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야영을 즐기는 모습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곳이다.



강원도 패방산 활공장

패방산의 풍경은 푸른 하늘과 동해의 어울림을 감상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백사장이 강릉 시내와 동해의 만남은 미국의 해안 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그 규모가 크다.

계곡 / 강

여름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장소이다. 울창한 숲이 만들어 낸 그늘 아래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기 좋다. 스노클링을 하며 물고기를 감상하고, 낚시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매년 찾는 양양 법수치 계곡은 수량이 풍부하고, 다양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산골 깊은 곳이라 찾는 이도 많지 않은 편이다. 계곡 수심이 깊어 다이빙도 하고, 계곡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어 필자가 꼽은 가장 핫스팟이다.



충청남도 금산 십이폭포

크고 작은 12개의 폭포를 만나 볼 수 있는 계곡이다. 비교적 한적한 편이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쉬기 좋다.



충청북도 영동 금강

노지 캠핑을 하며, 낚시까지 즐길 수 있다. 쏘가리, 베스, 꺾지 등 다양한 민물고기가 있어 짜릿한 손맛을 맛볼 수 있다.



강원도 철원 매월대 폭포

매월대 폭포는 폭포수가 만들어 낸 시원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온다. 야영과 함께 캐니여닝을 즐기는 이들도 만나 볼 수 있다. 폭포 소리와 곤충 소리가 어우러져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들을 수 있다.



강원도 포천 도마치 계곡

지금은 많이 알려진 계곡이지만, 군부대 안에 위치해 인간의 때가 덜 묻은 곳이다. 한여름에도 차가운 계곡물은 몸과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하류부터 상류까지 길이가 꽤 되며, 야영을 즐길 만한 장소도 많은 편이라 백패커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계곡이다.

바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산보다는 편히 찾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동해는 파란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며, 서해는 아름다운 노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충청남도 당진 왜목마을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한곳에서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인천 중구 소무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진항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겨 접근성이 높아졌다. 무의도를 지나 소무의도로 트레킹을 즐기며 서해를 조망한다. 서해에서는 보기 힘든 비교적 투명한 바닷물이 인상 깊다. 해변에 누워 썰물이 만들어 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단잠에 빠져들 수 있다.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서핑의 메카로 알려진 양양 죽도 해변은 고운 모래를 품은 해안가의 소나무 아래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탁 트인 시야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동해의 바람은 마음을 뺏겨 놓아준다. 서핑도 함께 즐긴다면 더욱 신나는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해변가 뒤편에 대형 할인마트가 있어 장보기도 편하다.

섬

섬은 바다와 산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무엇인가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오롯이 자연이 주는 풍경과 느낌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

서해의 무인도 사승봉도는 올해 인기오락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더욱 유명한 무인도가 되었다. 그래도 승봉도에서 어선을 타야만 입도할 수 있기에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다. 드넓게 펼쳐진 해안가에서 오롯이 내 집을 지을 수 있다. 섬에는 우물이 있어 해수욕을 즐긴 뒤 간단하게 물 샤워를 즐길 수도 있다. 밀물 때는 모래밭에서 조개를 캐낼 수도 있어 무인도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이다. 저녁에는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울릉도

울릉도는 해안 트레킹의 묘미를 맛볼 수 있으며,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취해 항상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른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동해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다.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가 백패커의 배를 한없이 부르게 만든다.

눈발에 누워 자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추운 겨울에도 백패킹이 빠질 수 없다. 백패킹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발에서 자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상상을 해본다. 동계 장비를 보강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에도 동계 백패킹은 그 이상을 보상해준다. 설렘, 짜릿함, 고생, 후회 순으로 동계 백패킹은 다양함을 선사하지만, 그 끝은 “또 한 번 가보고 싶은데!”라는 도돌이표만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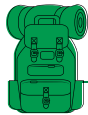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

안반데기 사람은 겨울에도 빠지지 않는다. 해발 고도가 높아 눈이 잘 녹지 않아 동계 백패킹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강원도 선자령

동계 백패킹의 성지로 불리는 선자령은 동계 백패킹을 꿈꾸는 이라면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많은 양의 눈을 만날 수 있어 실망하는 법이 없다. 3~4시간 등산도 해야 하고, 정상 부근에는 바람이 매섭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다.



백패킹 유의점

자연에서 생활하기에 백패킹을 즐길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장소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유의사항

백패킹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다. 깨끗하게 자연을 즐긴다고 하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실정법이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장소에 대해 사전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모든 국립공원에서의 야영 및 취사는 불법이며, 그 이외의 장소 또한 불법으로 규정한 곳이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백패킹에 입문하기 전에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깨끗하게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기에 클리 백패킹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주의 사항

항상 몸의 컨디션을 챙겨야 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활동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상약을 구비하는 것이 좋으며, 행선지를 미리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야외에서는 야생동물에 주의하고,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는 뱀이나 벌레 등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계곡 백패킹을 갈 때는 행여라도 비가 올 경우,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바로 철수를 해야 한다.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겨울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만큼 동계 백패킹을 즐긴다면 장비를 꼼꼼하게 갖추도록 하자.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좋지만, 생명과 직결된 만큼 충분한 스펙의 장비는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간은 자연 앞에 작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필자가 정리하는 글은 여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백패킹과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 백패킹의 개념이 처음 발생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다르므로 장거리, 장시간에 걸친 외국 백패킹 개념이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유입에 따라 오롯이 자연만 즐기는 백패킹이 아닌 다른 액티비티 활동과도 접목하면서 변화하기에 보다 넓은 개념에 걸쳐 백패킹을 정리하였다. ☞